

韓國 傳統 墨의 製造法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echnique of Manufacturing Korean Traditional Ink Sticks

朴 文 烈(Moon-Year Park)**

< 목 차 >

I. 緒 言	2. 阿膠
II. 墨의 概念과 種類	3. 香料
1. 松烟墨	IV. 墨의 製造法
2. 油煙墨	1. 傳統의 製墨法
III. 墨의 材料	2. 現代의 製墨法
1. 煤烟	V. 結 言

초 록

본 연구는 傳統 製墨法의 復元을 위한 墨의 製造法에 関하여 考究한 것으로, 그 주요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墨은 炭粉(그을음)과 阿膠를 섞어서 固體로 제조한 墨塊로 松烟墨과 油煙墨으로 구분된다. (2) 松烟墨은 소나무를 태운 炭粉에, 油煙墨은 식물성이나 동물성 및 광물성의 기름을 태운 炭粉에 아교를 섞어서 고체로 굳힌 墨이다. (3) 우리나라 傳統의 製墨法은 여러 文獻記錄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오늘날 傳統의 製墨法은 斷絶되어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으나, 현대에 들어서 관심있는 墨匠들에 의해 傳統적인 製墨法이 復元되고 있다.

키워드: 墨(떡), 製墨法, 松烟, 油煙, 松烟墨, 油煙墨, 阿膠, 香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study is to analyze the techniques of producing the traditional Korean ink sticks, in order to restore the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Korean traditional ink is a name which people generically calls a block of ink mass made from soots and pine pitch, and it can be classified into pine-pitch ink and oil-pitch ink according to the type of soot. (2) Pine-pitch ink is made from soot of burnt pine trees, and oil-pitch ink is made from soot of burnt plant, animal or mineral oil. Both are mixed with glue made from resin, and hardened into block form. (3) Raw materials of ink include soot, glue made from resin, and spices, and the techniques of making Korean traditional inks were documented in <Gosa Chwaryo> etc. (4) The techniques of making Korean traditional inks have not been handed down, but some craftsmen in modern Korea have restored those traditional techniques.

Keywords : traditional Korean ink, old Chinese ink, charcoal soot, soot of pine pitch, soot of oil, glue, aromatic essenc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Korean ink

* 본 研究는 2008년 5월 9-10일에 淸州古印刷博物館에서 열린 書誌學會 春季學術發表에서 發表한 內容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化情報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parkmoon@cju.ac.kr)

· 접수일: 2008년 8월 21일 · 최초심사일: 2008년 8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I. 緒言

일반적으로 紙·筆·墨·硯을 '文房四友'·'文房四寶'·'文房四侯'라 칭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墨은 특히 東洋에 있어서 繪畫와 書藝를 비롯하여 각종 書籍의 書寫와 각종 印刷術에 의한 書籍의 印出에 있어서 절대적인 存在로 군림해 왔다.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繪畫와 書藝 및 書籍의 書寫에 墨汁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韓國에서는 일찍부터 印刷術이 실용화되었다. 한국에서는 늦어도 高麗時代 초기부터 朝鮮時代 말기에 이르기까지는 木版印刷術이 實用되었으며, 高麗時代 末期부터 朝鮮時代 末期에 이르기까지는 金屬活字·木活字·土活字·匏活字 등의 다양한 活字印刷術도 實用되었던 것이다.

書籍의 印出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組版을 필요로 하지 않는 版印刷의 印出에는 松烟墨이 적합하며, 組版을 필요로 하는 活字印刷의 印出에는 油煙墨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本 研究는 墨의 概念과 種類 및 材料를 중심으로 墨의 製造法에 관하여 考究함으로써 韓國傳統 製墨法의 復元²⁾과 그 活性化에 一助하고자 한다.

II. 墨의 概念과 種類

千古의 文化가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墨을 사용하여 書寫材料인 紙에다 文字로 記錄한 文獻이 있었기 때문이다.

붉은 붉으면서도 검은 墨의 炭粉(煤·烟·carbon black)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가장 붉은 朱는 水銀이 변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득히 먼 京都에서 下達되는 五色의 詔書도 墨과 朱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重大한 命令이 天下에 下達될 수 있었던 것이다. 萬卷의 書籍을 읽으면서 朱筆로 文字에 句讀點을 찍고 註釋을 달아야 더욱 멋진 文章이 되고 더욱 異彩로워지는 것이다. 文房에는 毛筆·墨·紙·硯 등의 4가지 보배가 있는 바인데, 珠玉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畫家가 萬物을 그리는 데는 原色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서 쓰기도 하므로 畫家에게는 이들 갖가지의 물감이 고루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감은 물과 불의 作

1) 朴文烈, 金屬活字匠(大田: 文化財廳, 2001), p.135.

2) 현재 傳統의 製墨法을 繼承하고 있는 墨匠(墨尺)이 극히 드물어 본 研究의 進行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研究에서의 墨의 製造와 試演은 2007년 3월부터 準備를 시작하여 6월 1일에 實施되었으며, 試演者는 筆者가 운영하고 있는 <直指大學>에 '傳統 製墨法 試演 및 實習'의 講師로 출강하는 韓尙默 墨匠이다. 試演場所는 京畿道 華城市 東炭面 山隻里에 소재한 韓尙默 匠人의 工房인 藝技社이며, 當日의 試演에는 筆者를 비롯하여 國立中央科學館의 尹用賢 學藝研究官과 淸州古印刷博物館의 羅庚峻 學藝士 및 필자의 弟子인 金虎勇 君이 同席하였다. 本 研究를 위하여 墨의 製造와 試演에 協助해준 韓尙默 匠人을 비롯하여 助言을 아끼지 않은 尹用賢 學藝研究官과 羅庚峻 學藝士 및 寫眞攝影에 助力한 金虎勇 君에게 感謝를 표하는 바이다.

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는 또한 五行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이다. 神의 奧妙한 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겠는가.³⁾

製墨의 起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後漢時代의 書藝家이며 製墨家였던 韋誕(179-253)에 의하여 發明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三國志』 권21의 〈韋誕傳〉과 『文章敍錄』을 인용한 註에서는 이러한 記錄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韋誕이 製筆과 製墨에 能하였으며, 그가 만든 墨을 ‘仲將之墨’이라 하고 ‘등글고 漆과 같았다’는 등의 기록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後漢書』의 〈鄧皇后傳〉에서의 “鄧后가 즉위하자 萬國에서 貢物을 헌납하였는데 歲供紙와 墨 등 뿐이었다”⁵⁾는 記事 등을 통하여 볼 때, 韋誕 이전에도 이미 墨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戰國時代와 漢代에는 墨은 물론 漆·朱·丹 등이 墨의 代用으로 쓰였던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三國時代에 이미 墨이 사용되고 있었음은 高句麗가 松烟墨을 唐에 歲貢으로 바쳤다는 記錄에서 알 수 있다. 또한 陸友의 『墨史』에서 “高麗가 進貢한 墨은 猛州⁷⁾의 것이 가장 좋고 順州⁸⁾의 것이 그 다음이며 … 그 墨을 어떤 것은 平虜城⁹⁾에서 進貢된 墨이라 하였으며 어떤 것은 順州 혹은 猛州에서 進貢된 墨이라 하였다”¹⁰⁾라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平安南道를 중심으로 하는 關西地方이 그 위치가 中國과 가까워 이곳에서 생산된 墨이 주로 中國으로 輸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墨 중에서는 ‘翰林風月’, ‘草龍珠張’, ‘芙蓉堂’, ‘首陽梅月’ 등이 上品이었으며, 忠北 丹陽에서는 ‘丹山烏玉’이 生産되기도 하였다.¹¹⁾

墨은 어떤 종류의 炭粉이든 炭粉과 阿膠를 섞어서 固體로 제조한 墨塊를 凡稱하는 것이다.

-
- 3) 宋應星 著, 董文 校, 校正天工開物. 中國學術名著第5輯 學術叢編 第2集 第1冊. 臺北: 世界書局, 民國68(1979), pp.287-289.
- 4) 陳壽 等, 三國志, 卷21. 韋誕條.
(本傳) 散騎常侍陳留蘇林·光祿大夫京兆韋誕·樂安太守譙國夏侯惠·陳郡太守任城孫該·郎中河東杜擘等亦著文賦 頗傳於世.
 (註文) 文章敍錄曰 誕字仲將 太僕端之子 有文才 善屬辭章 … 韋仲將謂之草聖 伯英弟文舒者 次伯英 又有姜盟穎·梁孔達·田彥和及韋仲將之徒 皆伯英弟子 有名於世 然殊不及文舒也.
- 5) 范曄 撰, 後漢書. 鄧皇后紀.
永元十四(102)年 鄧后即位 在這以前 萬國貢獻竟求珍麗之物 自后即位 悉令禁絕 但[歲]供紙墨而已.
- 6) 陶宗儀, 輟耕錄, 卷第29. 墨條.
唐高麗歲貢松烟墨 用多年老松烟和麋鹿膠造成.
- 7) 猛州: 平安南道 孟山の 古稱이다.
- 8) 順州: 平安南道 順天의 古稱이다.
- 9) 平虜城: 平安南道 永柔 북쪽 35리에 있었던 古城이다.
- 10) 陸友, 墨史, 卷下,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高麗條.
高麗貢墨 猛州爲上 順州次之 … 往時潘谷嘗取高麗墨 再杆入膠 遂爲絕等 其墨 有曰平虜城進貢者 有曰順州貢墨 或曰猛州貢墨.
- 11)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淸州: 泰一文化社, 2003), pp.28-30.

따라서 墨의 주성분은 炭粉인 것이다. 墨의 주성분이 炭粉인 만큼, 炭粉의 종류에 따라 墨의 성질이나 품질이 달라지므로 그 종류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墨의 종류는 松烟墨과 油煙墨의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1. 松烟墨

松烟墨은 소나무를 태운 炭粉과 阿膠를 섞어서 固體로 굳혀서 제조한 墨塊로 ‘숯먹’ 또는 ‘개떡’이라고도 한다.

筆寫用으로는 油煙墨보다 松烟墨이 더 적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松煙墨은 平安道の 陽德에서 생산된 것이 有名하였는데, 그 精品은 墨色이 鮮光하고 膽氣가 香淡하였다.

松烟墨의 主原料인 松烟의 炭素粒子는 油煙의 炭素粒子보다 크며, 不純物의 영향으로 인하여 色의 변화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松烟墨에도 油煙墨에 비해 약간의 不純物이 더 섞여 있으므로 墨色이 厚朴하며 빛의 反射가 적고 色彩를 흡수하는 편이라 검은 색이 강한 것이다. 또한 松烟墨은 오래되면 靑墨化되기도 한다.¹²⁾

2. 油煙墨

油煙墨은 植物性이나 動物性 및 鑛物性의 기름을 태운 炭粉과 阿膠를 섞어서 固體로 굳혀서 제조한 墨塊로 ‘참떡’이라고도 한다.

油煙墨이나 唐墨은 글씨를 쓰는 데는 좋았으나, 木版을 印出하는 데에는 번지고 희미하여 松烟墨만 못했던 것이다.¹³⁾

油煙墨은 宋나라 때에 개발되어 繪畫의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번짐의 효과가 없는 松烟墨에 비해 번짐이 효과가 좋은 油煙墨이 나오면서 그 효과를 그림에도 나타낼 수 있었던 때문이었다. 四君子나 山水畫 등에서 沒骨法이나 苔法 등으로 墨色의 農談을 비교적 자유롭게 表現할 수 있는 것은 油煙墨의 덕택이었던 것이다.¹⁴⁾

12) ① 韓尙默, 尙墨(서울: 書藝文人畫, 2005), p.20.

② 韓尙默, 松烟墨(서울: 書藝文人畫, 2007), pp.99-103.

13)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 淸州: 泰一文化社, 2003. pp.28-30.

14) 韓尙默, 尙墨(서울: 書藝文人畫, 2005), pp.19-20.

Ⅲ. 墨의 材料

墨의 材料는 墨의 主成分인 炭粉과 阿膠 및 香料이다.

1. 炭粉

炭粉은 墨의 主成分이다. 炭粉의 종류에 따라 墨의 성질이나 品質이 달라지므로 가장 중요한 성분일 수밖에 없다. 炭粉에는 소나무를 태운 松烟과 기름을 태운 油煙이 있다.

가. 松烟

松烟은 소나무를 태워서 추출한 炭粉으로 약간의 不純物이 섞여 있어서 빛의 反射가 적고 色彩를 흡수하는 편이어서 厚朴한 黑色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松烟 炭素의 입자는 油煙炭素의 粒子보다 크고 不純物이 섞인 영향으로 墨色의 변화도 커서 오래되면 靑黑化된다. 赤松의 松烟이 最上品이며, 소나무의 기둥과 줄기뿐만 아니라 솔가지나 뿌리 등에서도 松烟을 추출하였다.¹⁵⁾

한국에서는 海州와 公州의 松烟이, 중국에서는 黃山의 松烟이, 일본에서는 紀州의 松烟이 유명하다. 소나무는 松津이 완전히 배출될 때까지 잘 말려서 태우는 것이 좋으며, 소나무 375kg을 태워야 약 10-12kg의 송연을 얻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등 東洋 三國의 松烟의 採取法은 다소 달랐던 듯하다.

韓國式 松烟의 採取法은 蒙古텐트처럼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圓錐形 모양으로 기둥에 걸친 후에 역새풀로 지붕을 덮는다. 煙氣를 유도하는 구들형태의 烟道를 幕舍까지 연결하고 밖에서 불을 피워 炭粉을 採取한다. 落松의 솔가지에서 추출한 松烟을 落松松烟, 生松에서 직접 추출한 松烟을 生松松烟이라 하였다.

中國式 松烟의 採取法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처럼 골조를 만들고 대나무를 쪼개서 골조를 서로 연결한 후 壯紙를 바른다. 벽돌로 아궁이에서 대나무집까지 烟道를 만들고 밖에서 불을 피워 壯紙에 炭粉이 붙으면 採取한다.

日本式 松烟의 採取法은 약 25평 정도의 房에다 중앙에 통로를 내고 양쪽으로 한국의 재래식 아궁이처럼 粘土로 16-18개의 아궁이를 만들어 솔가지를 태워서 炭粉을 채취한다.¹⁶⁾

15)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淸州: 泰一文化社, 2003), pp.28-30.

16) ① 韓尙默, 尙墨. 서울: 書藝文人畫, 2005. pp.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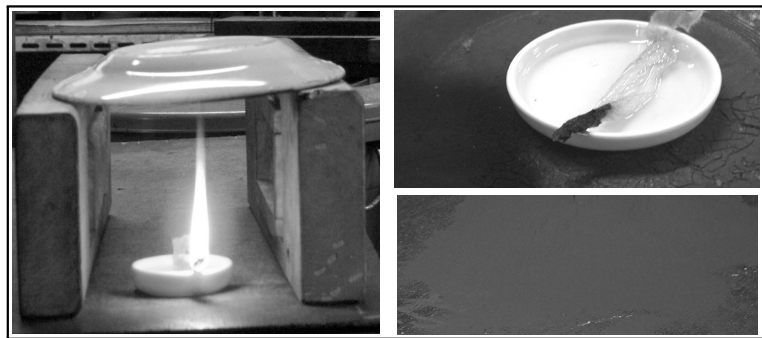
② 韓尙默, 松烟墨. 서울: 書藝文人畫, 2007. pp.58-65.



〈寫眞 1〉松烟의 採取

나. 油煙

油煙은 植物性·動物性·鑛物性 등의 기름을 태워서 추출한 炭粉이다. 炭粉의 품질은 炭粉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心地의 두께나 사용된 기름의 燃燒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두꺼운 심지의 不完全練燒로 추출된 油煙은 粒子가 굵고 색이 검으며 抽出量도 많으나, 얇은 심지의 完全燃燒로 추출된 油煙은 粒子가 가늘고 색이 흐리며 抽出量도 적다. 油煙은 번짐의 효과가 없는 松烟에 비해 번짐이 효과가 좋은 것이 특징이다.



〈寫眞 2〉油煙의 採取

植物性 油煙의 추출에는 麻子油·桐油·皂靑油·菜子油·豆油 등의 諸油¹⁷⁾를 비롯하여 菜種油·大豆油·胡麻油·檉油·綿實油·蓖麻子油 등의 植物性 기름을 사용하여 접시에 심

17) 徐有渠, 林園十六志,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1980. 怡雲志3, 文房雜製, '油煙墨法'條.
油煙墨法 用麻油燃密室中 以一瓦覆其上 卽得煤極簡易 大抵麻油則黑 桐油則不黑 ... 古法惟用松燒烟 近代始用桐油 麻子油燒煙 衢人用皂靑油燒煙 蘇人用菜子油 豆油燒煙 以上諸油俱可燒煙製墨 但桐油得烟最多爲墨

지를 꽃아 태워서 채취한다.¹⁸⁾ 먼저 씨앗을 깨끗이 씻어 異物質을 제거하고 精選해서 찌서 말린 후에 壓搾機로 기름을 짜서 脫色·脫酸·脫臭를 한다. 접시에 기름을 붓고 燈心草 心地를 넣은 후에 불을 붙인다. 불을 붙인 후에 심지 위에 土器 등을 얹어서 炭粉을 받는다. 採烟房은 3-4坪 정도의 방에 외부의 溫度와 濕度 및 바람 등이 內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土壁으로 만든다. 방에는 120개 정도의 등불을 켜며,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서 작업을 할 수 없다.

鑛物性 油煙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燃料에 직접 불을 붙여 炭粉을 추출하는 直火法, 불꽃을 金屬面에 충돌시켜 炭粉을 채취하는 芯焚法, 精油工場에서 대량으로 추출하는 熱分解法 등이 있다.¹⁹⁾

2. 阿膠

阿膠는 소·물소·말·개·토끼 등 다양한 동물의 뽕·뺨·힘줄·가죽 등을 물과 함께 끓여서 만든 動物性 蛋白質이다.

전통의 鹿膠는 사슴의 뽕·뺨·가죽 등에서 추출한 고급의 韓藥材이며, 牛膠는 소나 물소 등의 뺨나 가죽에서 추출한 것으로 最上의 牛膠는 農牛의 가죽에서 추출한 것이다. 魚膠는 民魚의 부레를 말려서 추출한 것이다.

阿膠는 전통적으로 木工의 接着材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본드(bond)로 대체된 뒤로는 愛玩 動物의 껍으로 많이 쓰일 뿐이다. 오늘날 고급의 阿膠는 中華料理의 材料와 藥品의 靑靑 및 美容의 靑靑으로 쓰이고 있다.²⁰⁾

『周禮』〈冬官〉‘考工記’에 “鹿膠는 靑白色이고 馬膠는 赤白色이며, 牛膠는 火赤色이고 鼠膠는 黑色이며, 魚膠는 食餌이고 犀膠는 黃色이다”²¹⁾는 기록이 있어 周代에 이미 각종 動物로 膠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에서는 阿膠를 製造하는 方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阿膠를 製造하는 方法은 黃牛皮²²⁾에 물을 浸透시켜 [黃]牛毛²³⁾를 빼낸 뒤, 平板 위에 펼쳐 널고 生黃土²⁴⁾를 가져다 [黃牛]皮 위에 한참이 지나도록 고루 뿌려준다. 작은 칼로 筋膜²⁵⁾을 깎아내

18)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淸州: 泰一文化社, 2003), pp.28-30.

19) 韓尙默, 尙墨(서울: 書藝文人畫, 2005), pp.25-28.

20) 韓尙默, 尙墨(서울: 書藝文人畫, 2005), pp.29-30.

21) 周禮, 冬官, ‘考工記’條.

鹿膠靑白 馬膠赤白 牛膠火赤 鼠膠黑 魚膠餌 犀膠黃.

22) 黃牛皮: 황소 가죽을 의미하는 것이다.

23) 牛毛: 황소 가죽에 붙은 털을 의미하는 것이다.

24) 生黃土: 加工하지 않은 날 黃土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 물을 자주 갈아서 씻어가며 잘게 썰어낸 뒤, 無油膩鍋²⁶⁾ 속에 넣어서 물과 함께 달이면 [阿]膠가 남게 된다. [無油膩鍋에서] 부어 내어 竹隔子²⁷⁾ 위에 얇게 펼쳐 널어서 바람에 乾燥시킨다.²⁸⁾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 阿膠를 製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²⁹⁾

가. 불리기

작은 물탱크에 동물의 뽕·뺨·힘줄·가죽 등을 가득 넣고 물을 채운 다음 불린다. 여름에는 惡臭가 진동하고 모기나 파리 등의 벌레들이 들끓으며, 물을 갈 때마다 廢水도 많이 배출된다. 동물의 뽕·뺨·힘줄·가죽 등이 원래의 4배 정도 膨脹되도록 불려야 한다.

나. 끓이기

불린 동물의 뽕·뺨·힘줄·가죽 등을 가마솥에 넣고 石灰나 氢氧化소를 넣은 다음 물을 채우고 강한 불로 10시간, 약한 불로 10시간 정도를 끓여 初湯을 만든다. 初湯의 抽出物을 다른 용기에 붓고 물을 채워서 5-6시간 정도 끓여 再湯을 만든다. 再湯의 抽出物을 4시간 정도 끓여서 三湯을 만든다. 이와 같이 四湯·五湯을 하여 阿膠液을 抽出한다. 抽出物은 가죽 375kg에서 三湯까지 약 240-260kg 정도가 抽出된다. 남은 찌꺼기는 들어내어 말린 후에 잘게 썰어서 개나 고양이 등 愛玩用 動物의 飼料로 사용한다.

다. 凝固시키기

추출된 阿膠液을 木箱子에 넣어 하루 밤을 방치하여 凝固시킨다. 이때의 온도는 약 10℃ 이하가 좋으나, 온도가 너무 낮아 얼게 되면 좋지 않다.

라. 乾燥시키기

豆腐같이 된 상태를 칼로 절단해서 대나무발에 널어서 乾燥한다. 건조는 每年 10月에서 이듬해 3月末까지가 좋으며, 밤에는 얼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 주어야 한다.

25) 筋膜: 힘줄과 거죽을 의미하는 것이다.

26) 無油膩鍋: 기름을 바르지 않은 미끄러운 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마솥을 지칭하는 것이다.

27) 竹隔子: 대나무로 만든 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28) 洪萬選, 山林經濟. 影印本(서울: 景仁文化社, 1973), 卷3. 雜方. '造膠法'條.

造膠法 黃牛皮水浸透 拔去毛 仰攤在平板上 取生黃土 勻撒皮上良久 以小刀刮去筋膜 換水頻洗斫碎 入無油膩鍋內 水煎成膠 傾出 薄攤竹隔子上 風乾.

29) 韓尙默, 尙墨(서울: 書藝文人畫, 2005), pp.30-33.

마. 保管하기

阿膠는 溫度와 濕도가 낮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습기가 많은 곳은 阿膠가 乳化되고 세균에 의해 腐敗되기 때문이다.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으면 아교에 龜裂이 생긴다.³⁰⁾

3. 香料

일반적으로 墨香이 좋을수록 墨의 品質을 고급으로 여긴다. 墨에는 원래 香이 없으나, 墨香이 있는 것은 阿膠 자체의 穢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香料를 첨가한 때문이다. 그러나 墨香은 전통적으로 은은하면서도 精神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設備의 발달로 아교 자체의 냄새도 적어졌고 墨에 첨가하는 香料도 다양해졌다. 전통적으로 墨에 첨가되는 香料는 甘松末·白檀·丁香·樟腦·龍腦·麝香 등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香을 첨가하며 심지어 兒童用 墨에는 바나나향이나 초코릿향을 쓰기도 한다.³¹⁾

IV. 墨의 製造法

墨은 東洋三國에 있어 매우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墨의 製造는 그 주성분인 炭粉을 阿膠와 섞어서 固體로 굳히는 것이다.

宋應星의 저술인 『天工開物』〈丹青第十六〉의 墨條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무릇 墨은 燒烟과 凝質로 만드는 것이다. 桐油나 淸油 및 猪油 등의 油煙으로 제조한 것이 10분의 1이고 松烟으로 제조한 것이 10분의 9이다 ... 무릇 松烟으로 墨을 제조하려면 물속에 오래도록 담가 浮沈시켜 精麩를 닦은 후에 阿膠와 섞어 굳혀서 捶敲하는데 그 多寡에 따라 무르거나 단단하게 된다. 金子나 麝香 등의 진귀한 재료를 摻入하는데 따른 松烟이나 油煙의 增減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 나머지는 『墨經』이나 『墨譜』에 자세하여 博物者 스스로 자상하게 알 수 있으리라 여겨, 여기에 서는 원료와 방법의 대략만을 기록하는데 그치고자 한다.³²⁾

30) 韓尙默, 松烟墨(서울: 書藝文人畫, 2007), pp.66-69.

31) 韓尙默, 尙墨(서울: 書藝文人畫, 2005), pp.33-34.

32) 宋應星 著, 董文 校, 校正天工開物. 中國學術名著第5輯 學術叢編 第2集 第1冊. 臺北: 世界書局, 民國68(1979), pp.288-289.

凡墨 燒烟凝質而爲之 取桐油·淸油·猪油烟爲者 居十之一 取松烟爲者 居十之九 ... 凡松烟造墨 入水久浸 以浮沉分精麩 其和膠之後 以捶敲多寡分脆堅 其摻入珍料與漱金·啣麝 則松烟·油煙 增減聽人 其餘墨經·墨譜 博物者自詳 此不過粗記質料原因而已.

그러나 製墨法에는 동양 삼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었던 듯하며, 또한 時代와 匠人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랐던 듯하다.

1. 傳統의 製墨法

魚叔權(生沒年未詳, 中宗朝人)의 『攷事撮要』에서는 <韋仲將合墨法>과 <俗例造墨法> 등 東洋 傳統의 製墨法이 수록되어 있다. <韋仲將合墨法>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좋은 純烟을 搗粉한 후에 항아리 속에서 가는 明絛로 체질을 한다. 墨[烟] 1斤에 좋은 阿膠 5兩을 [섞어] 梲皮汁³³⁾ 속에 담근다. 梲은 江南의 樊雞木인데, 그 木皮를 물에 담그면 綠色이 되며 [그 물에] 阿膠를 溶解하면 더욱이 黑色으로 변한다. 雞子和 白去黃 5枚에 또한 眞珠紅 1兩과 麝香 1兩을 각각 별도의 細篔³⁴⁾로 체질하여 [이들을] 모두 모아 골고루 鐵白 속에 넣고 차라리 剛勁해지더라도 潤澤이 나지는 않도록 3萬杵로 擣粉하는데 [이는]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다. 合墨³⁵⁾은 2月과 9月에 하지 못하면 이루기 어려운데, 溫時에는 썩은 惡臭가 나고 寒時에는 乾燥와 澆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風日³⁶⁾을 틈타 破碎한 重量이 2兩에 지나지 않는다. [韋仲將³⁷⁾의 墨은 1點이 漆과도 같았다.³⁸⁾

<韋仲將合墨法>은 『墨經』을 내용을 요약한 것이나, <俗例造墨法>은 우리나라 傳統 製墨法을 소개한 것인 듯하다. <俗例造墨法>은 다음과 같다.

純烟³⁹⁾ 10斤⁴⁰⁾과 阿膠 4斤 및 水 10斤을 준비한다. 水 9斤에 阿膠를 넣어 銅盆⁴¹⁾에 담아 불

33) 梲皮汁: 물푸레나무 껍질의汁을 지칭하는 것이다.

34) 細篔: 가는 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35) 合墨: 製墨을 의미하는 것이다.

36) 風日: 바람과 햇빛·날씨·天候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37) 韋仲將: 韋誕을 지칭하는 것이다.

38) 魚叔權, 攷事撮要. 戊申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肅宗 1(1675)]. 卷下. '韋仲將合墨法'條.

以好純烟擣訖 以細絹篔於缸中 烟一斤 先以好膠五兩 浸梲皮汁中 梲江南樊雞木也 其皮入水綠色 解膠又益黑色 可下雞子白去黃五枚 亦以眞珠紅一兩麝香一兩 皆別治細篔 都合調下鐵白中 寧剛不宜澤 擣三萬杵 多益善 合墨不得二月九月 溫時敗臭 寒則難乾澆溶 見風日破碎 仲將之墨 一點如漆 그러나 이 記錄은 그의 『稗官雜記』에서는 蕭子良이 王僧虔의 書簡에 答書한 내용을 引用하여 “蕭子良答王僧虔書曰 仲將之墨 一點如漆 其方曰 以好純烟擣訖 以細絹篔於缸中 墨一斤 以好膠五兩 浸梲皮汁中 梲江南樊雞木也 其皮入水綠色 解膠又益黑色 可下雞子白去黃五枚 亦以眞珠紅一兩麝香一兩 皆別治細篔 都合調下鐵白中 寧剛不宜澤 擣三萬杵 多益善 合墨不得二月九月 溫時敗臭 寒則難乾澆溶 見風日破碎 重不過二兩 按此方雖未保眞假 余嘗試之 其品果佳 但不錄取烟作丁之法 是可恨也.”이라 수록하고 있다.<魚叔權, 稗官雜記, 卷4.>

39) 純烟: 純粹한 炭粉을 의미하는 것이다.

40) 斤: 重量의 단위로 1斤은 16兩이며 160g이다.

위에 올려서 融化되면 [純]烟을 넣어 煎和되기를 기다렸다가 그친다. 나머지 1斤의 물로 [銅]盆을 씻고 [그 물을] 별도의 容器에 담아두었다가 搗粉할 때에 손으로 흘뿌려 가며 萬杵⁴²⁾로 搗粉을 하며, 또한 손바닥에 묻어날 만큼 [液化]되지 않을 정도로 한다. [墨]丁⁴³⁾을 만들 때에는 幽室 속에서 얇게 印出해낸 것을 平板 위에 濕灰⁴⁴⁾ 1寸 가량을 펴서 평평하게 한 뒤, 다시 그 위에 종이(紙)⁴⁵⁾를 펴고 종이 위에 墨[丁]을 늘어놓고 墨[丁] 위에 [다시] 종이를 펼쳐 놓는다. 다시금 濕灰 1寸 가량을 펴서 三夜⁴⁶⁾ 혹은 一夜⁴⁷⁾를 경과한 후에 [墨]丁마다 깎아서 四隅를 方正하게 한다. 또한 乾灰⁴⁸⁾ 1寸 가량을 [平]板 위에 펴서 앞서와 같이 墨[丁]의 위아래에 종이를 펼쳐 놓고 또한 乾灰 1寸 가량을 펴서 三夜 내지 一夜를 경과한 후에 꺼낸다. 幽室 속의 平板 위에 펼쳐놓고 자주 翻覆해서 堅強할 정도로 한다.⁴⁹⁾

魚叔權 이후로도 여러 學者들의 著述에는 製墨法이 수록되고 있다.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에서는 傳統 製墨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韋仲將의 合墨法은 좋은 純烟을 搗粉한 후에 항아리 속에서 가는 明紬로 체질을 한다. 墨[烟] 1斤에 좋은 阿膠 5兩을 [섞어] 梲皮[汁 속]에 담근다. 梲은 江南의 樊雞木인데, 그 木皮를 물에 담그면 綠色이 된다. 그 [梲皮]汁 속에 雞子和 白去黃 5兩에 또한 眞珠紅 1兩과 麝香 1兩을 각각 별도의 細篋로 체질하여 [이들을] 모두 모아 골고루 鐵臼 속에 넣고 차라리 剛勁해지더라도 潤澤이 나지는 않도록 3萬杵로 搗粉하는데 [이는]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다. 合墨은 부득이 2月과 9월에 해야 하는데, 溫時에는 썩은 惡臭가 나고 寒時에는 乾燥와 澆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風日을 틈타 破碎한다 [韋]仲將의 墨은 1點이 漆과도 같았다.

俗例의 造墨法은 純烟 10斤과 阿膠 4斤 및 水 10斤을 준비한다. 水 9斤에 阿膠를 넣어 銅盆에 담아 불 위에 올려서 融化되면 [純]烟을 넣어 煎和되기를 기다렸다가 그친다. 나머지 1斤의 물로 [銅]盆을 씻고 [그 물을] 별도의 容器에 담아두었다가 搗粉할 때에 손으로 흘뿌려 가며 萬杵로 搗粉을

41) 銅盆: 구리로 만든 동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42) 萬杵: 1만 번 혹은 그 이상의 공이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丁: 墨塊·墨釘·墨錠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44) 濕灰: 濕氣가 많은 축축한 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45) 紙: 韓紙를 지칭하는 것이다.

46) 三夜: 사흘 밤을 의미하는 것이다.

47) 一夜: 하룻밤을 의미하는 것이다.

48) 乾灰: 濕氣가 없는 마른 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49) 魚叔權, 攷事撮要, 戊申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肅宗 1(1675)], 卷下, '俗例造墨法'條.

純烟十斤 阿膠四斤 水十斤 以水九斤浸膠 盛銅盆 置火上 待融 以烟和訖 以餘一斤水洗盆 盛別器 搗時 用手揮洒 搗期萬杵 又以不染掌爲度 作丁時 從薄印出於幽室中平板上 布濕灰一寸許 令平 次布紙 紙上攤墨 墨上布紙 再布濕灰一寸許 經三夜 或一夜後 每丁割四方 令正 又布乾灰一寸許於板上 如前布紙於墨上下 又乾灰一寸許 經三夜 或一夜出之 攤於幽室中 平板上 數數翻覆 以堅剛爲度.

하며, 또한 손바닥에 묻어날 만큼 [液化]되지 않을 정도로 한다. [墨]丁을 만들 때에는 幽室 속에서 얇게 印出해낸 것을 平板 위에 濕灰 1寸 가량을 펴서 평평하게 한 뒤, 다시 그 위에 종이(紙)를 펴고 종이 위에 墨[丁]을 늘어놓고 墨[丁] 위에 [다시] 종이를 펼쳐 놓는다. 다시금 濕灰 1寸 가량을 펴서 三夜 혹은 一夜를 경과한 후에 [墨]丁마다 깎아서 四隅를 方正하게 한다. 또한 乾灰 1寸 가량을 [平]板 위에 펴서 앞서와 같이 墨[丁]의 위아래에 종이를 펼쳐 놓고 또한 乾灰 1寸 가량을 펴서 三夜 내지 一夜를 경과한 후에 꺼낸다. 幽室 속의 平板 위에 펼쳐놓고 자주 翻覆해서 堅強할 정도로 한다.

松煤墨⁵⁰⁾을 製造하는 方法은 松烟을 많이 채워워서 布袋자루에 넣고 煮熟⁵¹⁾시켜 乾燥되기를 기다렸다가 製造한다. 阿膠와 水의 斤兩⁵²⁾은 앞서의 製造法과 같다. [墨]丁을 제조할 때 大小⁵³⁾와 厚薄⁵⁴⁾은 便宜대로 하더라도, 다만 반드시 萬杵 이상 정도로 [搗粉]해야만 眞墨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⁵⁵⁾

또한 徐有渠(1764-1845)의 『林園十六志』 중의 〈怡雲志 3〉에서는 傳統 製墨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純烟 10斤과 阿膠 4斤 및 水 10斤을 준비한다. 먼저 水 9斤에 阿膠를 넣어 銅盆에 담아 불 위에 올려서 融化되면 [純]烟을 넣어 煎和되기를 기다렸다가 그친다. 나머지 1斤의 물로 [銅]盆을 씻고 [그 물을] 별도의 容器에 담아두었다가 搗粉할 때에 그 물을 흠뻑려 가며 萬杵로 搗粉을 하며, 또한 손바닥에 묻어날 만큼 [液化]되지 않을 정도로 한다. [墨]錠⁵⁶⁾을 만들 때에는 密室 속에서 얇게 印出해낸 것을 平板 위에 濕灰 1寸 가량을 펴서 평평하게 한 뒤, 다시 그 위에 종이를 펴고 종이 위에 墨[錠]을 늘어놓고 墨[錠] 위에 [다시] 종이를 펼쳐 놓는다. 다시금 濕灰 1寸 가량을 펴서 三夜 혹은 一夜를 경과한 후에 [墨]錠마다 칼로 四隅를 깎아서 方正하게 한다. 또한 乾灰 1寸 가량을 [平]板 위에 펴서 앞서와 같이 墨[錠]의 위아래에 종이를 펼쳐 놓고 또한 乾灰 1寸 가량을 펴서

50) 松煤墨: 松烟墨을 지칭하는 것이다.

51) 煮熟: 삶아서 熟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2) 斤兩: 무게·重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53) 大小: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54) 厚薄: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다.

55) 洪萬選, 山林經濟, 影印本(서울: 景仁文化社, 1973), 卷3, 雜方, '造墨'條.

韋仲將合墨法 以好純烟擣訖 以細絹篩於缸中 烟一斤 先以好膠五兩 浸榨皮 榨 江南樊鷄木也 其皮 入水綠色 汁中 可下鷄子去白黃五兩 亦以眞朱紅一兩 麝香一兩 皆別治細篩 都合調下鐵臼中 寧剛不宜澤 搗三萬杵 多多益善 合墨 不得二月九月 溫時敗臭 寒則難乾 湮溶 見風日破碎 仲將之墨 一點如漆 俗例造墨法 純烟十斤 阿膠四斤 水十斤 以水九斤 浸膠 盛銅盆 置火上 待融 以烟和訖 以餘一斤水洗盆 盛別器 擣時 用手揮洒 搗期萬杵 又以不染掌爲度 作丁時 從薄印出於幽室中 平板上 布濕灰一寸許 令平 次布紙 紙上攤墨 墨上布紙 再布濕灰一寸許 經三夜 或一夜後 每丁割四方令正 又布乾灰一寸許於板上 如前 布紙於墨上下 又布乾灰一寸許 經三夜 或一夜出之 攤於幽室中 平板上 數數翻覆 以堅強爲度 造松煤墨法 多取松烟 入俗煮熟 待乾製造 阿膠及水斤兩 如上造法 作丁時 大小厚薄 隨宜 但必以萬杵 爲度 無異眞墨.

56) 錠: 墨塊·墨釘·墨錠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三夜 내지 一夜를 경과한 후에 꺼낸다. 幽室 속의 平板 위에 펼쳐놓고 數日 동안 翻覆해서 乾燥될 정도로 한다.(攷事撮要)

松煤墨을 製造하는 方法은 松烟을 많이 채취해서 布袋자루에 넣고 煮熟시켜 乾燥되기를 기다렸다가 製造한다. 阿膠와 水의 斤兩은 앞서의 製造法과 같다. [墨]錠을 제조할 때 大小와 厚薄은 便宜대로 하더라도, 다만 반드시 萬杵 이상 정도로 [搗粉]해야만 하는 것이다.(同上)⁵⁷⁾

한편 辛仲厚(生沒年未詳, 英祖朝人)의 『東國厚生錄』⁵⁸⁾에서는 傳統 製墨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俗法은 純烟 10斤과 阿膠 4斤 및 水 10斤을 준비한다. 水 9斤에 阿膠를 넣어 銅盆에 담아 불 위에 올려서 融化되면 [純]烟을 넣어 煎和되기를 기다렸다가 그친다. 나머지 1斤의 물로 [銅]盆을 씻고 [그 물을] 별도의 容器에 담아두었다가 搗粉할 때에 손으로 흠뻑려 가며 萬杵로 搗粉을 하며, 또한 손바닥에 묻어날 만큼 [液化]되지 않을 정도로 한다. [墨]丁을 만들 때에는 密室 속에서 얇게 印出해낸 것을 平板 위에 濕灰 1寸 가량을 퍼서 평평하게 한 뒤, 다시 그 위에 종이를 펴고 종이 위에 墨[丁]을 늘어놓고 墨[丁] 위에 [다시] 종이를 펼쳐 놓는다. 다시금 濕灰 1寸 가량을 퍼서 三夜 혹은 一夜를 경과한 후에 꺼내어, 幽室 속의 平板 위에 펼쳐놓고 자주 翻覆해서 剛堅할 정도로 한다.

韋仲將의 墨法은 좋은 純烟을 搗粉한 후에 항아리 속에서 가는 明紬로 체질을 한다. 墨[烟] 1斤에 좋은 阿膠 5兩을 [섞어] 梘皮汁⁵⁹⁾ 속에 담근다. 梘皮[汁]를 넣은 물은 綠色이며 [그 물에] 阿膠를 溶解하면 더욱이 黑色으로 변한다. [그 梘皮汁 속에] 鷄卵과 白去黃 5兩에 또한 眞珠 1兩과 麝香 1兩을 각각 별도의 細篋로 체질하여 [이들을] 모두 모아 골고루 鐵白 속에 넣고 차라리 剛勁해지더라도 潤澤이 나지는 않도록 3萬杵로 搗粉하는데 [이는]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다. 合墨은 2月과 9월에 하지 못하면 이루기 어려운데, 溫時에는 썩은 惡臭가 나고 寒時에는 乾燥와 渣滓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개월 동안 破碎한 重量이 2兩에 지나지 않으나, 1點이 漆과도 같았다.⁶⁰⁾

- 57) 徐有渠, 林園十六志,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1980. 怡雲志3, 文房雜製, '東墨法'條.
 今俗造墨法 純烟十斤 阿膠四斤 水十斤 先以水九斤浸膠 盛銅盆 置火上 待融化 入烟攪和訖 以餘一斤水洗盆 盛別器 搗時 用水揮灑 搗期萬杵 又以不染掌爲度 作錠時 從薄印出於密室中平板上 鋪濕灰一寸許令平 次鋪紙 紙上攤墨 墨上鋪紙 再鋪濕灰一寸許 經三夜 或一夜後 每錠用刀 削平四隅令方正 又布乾灰一寸許於板上 如前 鋪紙於墨上下 又布乾灰一寸許 經三夜 或一夜出[之] 攤於密室中平板上 數日翻覆 以乾爲度(攷事撮要). 造松煤墨法 多取松烟 入俗煮熟 待乾製造 阿膠及水斤兩 如上法 作錠時 大小厚薄 隨宜 但必以萬杵 爲度(同上)
- 58) 辛仲厚,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1862頃].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東國厚生錄』 혹은 『厚生錄』으로 알려진 본서의 編著者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필자는 본서의 編著者가 辛仲厚(生沒年未詳, 英祖朝人)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관하여는 別稿로 다루고자 한다.
- 59) 梘皮汁: 물푸레나무 껍질의汁을 지칭하는 것이다.
- 60) 辛仲厚,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1862頃]. '造墨'條.
 俗法 純烟十斤 阿膠四斤 水十斤 以水九斤浸膠 盛銅盆 置火上 待融 以烟和訖 以餘一斤水洗盆 盛別器 搗時 用手揮灑 搗萬杵 又以不染掌爲度 作丁時 從薄印出於幽室中平板 布濕灰一寸許令平 次布紙 紙上攤墨 墨上布紙 再布濕灰

이상에서 보면 魚叔權의 『攷事撮要』에 〈韋仲將合墨法〉과 〈俗例造墨法〉 등이 수록된 이후, 洪萬選의 『山林經濟』에는 松烟墨의 제조법이 더 수록되었을 뿐 『攷事撮要』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徐有槩의 『林園十六志』 중의 〈怡雲志〉와 辛仲厚의 『東國厚生錄』에도 魚叔權의 『攷事撮要』에 수록된 내용이 그대로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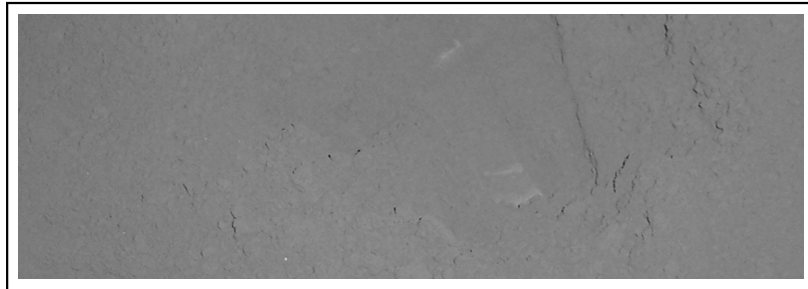
2. 現代의 製墨法

오늘날 傳統의 製墨法은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墨匠(墨尺)이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현대에 들어서 傳統의인 方法을 復元한 製墨法은 다음과 같다.⁶¹⁾

가. 炭粉의 준비

먼저 炭粉을 준비한다. 松烟墨을 製造하기 위해서는 松烟을 준비해야 하며, 油煙墨을 製造하기 위해서는 油煙을 준비해야 한다.



〈寫眞 3〉 炭粉의 준비

나. 阿膠의 溶解

阿膠를 타거나 눈지 않도록 잘 저으면서 重湯으로 끓인다. 季節이나 作業의 場所에 따라 끓이는 溫度와 時間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는 墨匠의 秘法이다.

一寸許 經三夜 或一夜出之 攤於幽室中 平板上 數數翻溼 以剛堅爲度. 韋仲將墨法 以好純煙搗訖 以細絹篩於缸中 墨一斤 以好膠五兩 浸榨皮汁中 榨(무푸레)皮入水綠色 解膠又益黑色 可下鷄卵白去黃五枚 亦以眞朱一兩 麝香一兩 皆別治細篩 都合調下鐵臼中 寧剛不宜澤 搗三萬杵 多多益善 合墨 不得二月九月 難成 溫時敗臭 寒則難乾 澆溶 見兩月破碎 重不過二兩 一點如漆.

61) 韓尙默, 尙墨(서울: 書藝文人畫, 2005), pp.40-54.



〈寫眞 4〉 阿膠의 溶解

다. 炭粉과 阿膠의 攪拌

炭粉과 阿膠를 떡 반죽을 하듯이 攪拌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00×100cm 정도의 板子 위에 炭粉을 놓고 炭粉의 가운데를 넓혀 그 속에 阿膠液을 붓는다. 손 삽 등의 工具를 사용하여 가운데서부터 炭粉과 阿膠液을 섞어 가면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도록 攪拌한다.



〈寫眞 5〉 炭粉과 阿膠의 교반

라. 반죽과 香料의 添加

攪拌된 덩어리를 다시금 떡 반죽을 하듯이 반죽을 한다. 반죽은 炭粉과 阿膠液을 균일하게 배합하여 粒子를 곱게 하는 것이다. 입자가 거칠면 墨色이濁할 뿐만 아니라 번짐도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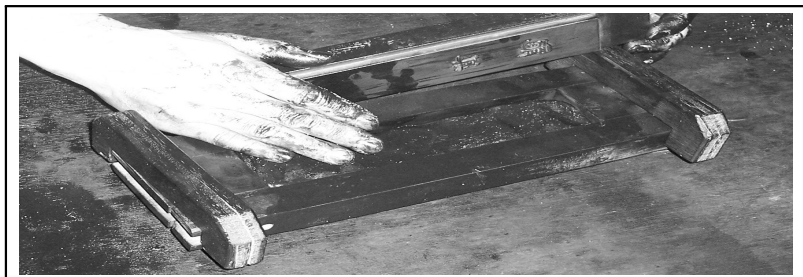
〈寫眞 6〉 반죽과 香料의 첨가

반죽은 墨의 제조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墨匠의 秘法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반죽을 할 때에는 많이 찼고 뺄수록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3萬번 정도를 찼었다고 한다. 반죽의 과정에서 재료가 골고루 잘 섞여야 炭粉의 部分凝集도 막을 수 있고 반죽 속의 氣泡도 제거되는 것이다. 반죽 속에 氣泡가 있으며 건조할 때에 龜裂이 가기 때문이다. 잘 반죽된 炭粉 덩어리는 光澤이 나며, 墨匠들은 오랜 경험으로 반죽의 상태를 광택으로 판별하는 비법을 체득하고 있다.

완성된 반죽에서 阿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한 趣向의 香料를 넣고 수십 번 이상을 발로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阿膠가 굳으면 반죽이 잘되지 않으므로 밑판에 보온을 해주거나(日式), 반죽이 식었을 때마다 찜통으로 데우기도 한다(中式).

마. 형틀에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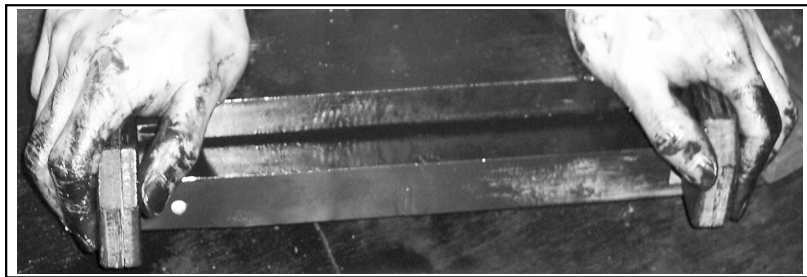
製造하고자 하는 墨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완성된 반죽을 떼어서 저울로 적정한 무게를 단다. 적정한 무게의 반죽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형틀에 들어갈 수 있는 굵기와 길이로 만든다. 반죽을 손바닥으로 비비는 것은 손바닥의 느낌으로 반죽의 濕度狀態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며, 墨匠들은 오랜 경험으로 손바닥의 느낌으로 반죽의 습도상태를 판별하는 비법을 체득하고 있다. 따라서 墨匠들은 최종적인 반죽의 습도상태를 손바닥의 느낌으로 판별하는 것이다. 반죽을 형틀에 넣고 손으로 눌러 다듬은 후에 형틀의 뚜껑을 닫는다.



〈寫眞 7〉 형틀에 넣기

바. 누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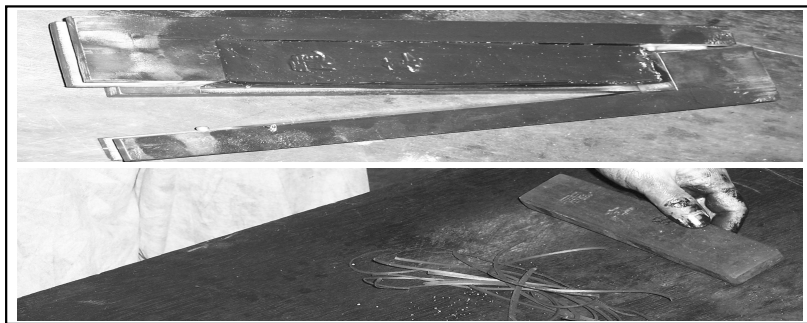
형틀 속에 있는 완성된 반죽을 자귀에 넣고 누른다. 예전에는 형틀 3-4개를 자귀 속에 넣고 사람이 올라타서 눌렀으나, 오늘날에는 프레스기로 누른다. 누르는 壓力에 따라 너무 오래 누르거나 강하게 누르면 형틀에서 반죽이 많이 빠져나오며, 약하게 누르면 墨의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이다. 墨匠들은 오랜 경험으로 반죽의 상태에 따라 누르는 압력을 조절하였던 것이다.



〈寫眞 8〉 누르기

사. 귀깎기

형틀에서 빼낸 墨을 하루 동안 건조시킨 후 빠져나온 귀를 대패나 칼로 깎아낸다. 칼이 너무 깊 이 들어가면 墨이 傷하고 얇게 들어가면 모양이 깨끗하지 않게 된다.



〈寫眞 9〉 귀깎기

아. 乾燥

귀를 깎아낸 墨은 급격히 건조하면 갈라지므로 일정한 溫度와 濕度에서 천천히 乾燥해야 한다. 휘어진 墨은 매일 뒤집어 가면서 건조해야 한다.

1차로 가로 90 × 세로 60 cm의 나무상자에 먼저 재(灰)를 깔고 그 위에 韓紙를 펴고 墨을 놓는다. 墨 위에 다시 한지를 깔고 재로 덮어 건조시킨다. 이때 韓紙를 깔지 않고 재(灰) 속에 넣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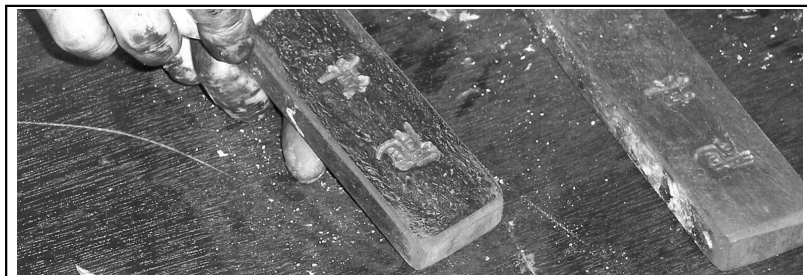


〈寫眞 10〉 乾燥

墨을 '재털이떡'이라 한다. 2차로 다음날 젖은 재를 새로운 재로 갈아 주어 건조시켜야 하는데, 제 때에 재를 갈아주지 않으면 乾燥過程에서 墨에 龜裂이 생긴다. 2차까지 건조가 끝난 墨은 굴비를 엮듯 엮어서 천장에 매달아 自然에서 건조시킨다. 제 때 자주 뒤집어주지 않으면 龜裂이 생기며, 이 과정에서 破墨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墨은 墨匠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잘 건조되고 좋은 墨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마무리

건조가 끝난 墨은 表面에 달라붙은 재나 不純物을 털어내고 表面處理를 한다. 우선 쌀 즙에 약간의 阿膠液과 墨汁을 넣고 섞어서 칠을 한 후에 光澤을 낸다. 墨에 칠을 하는 것은 손으로 잡을 때에 墨이 손에 묻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좋은 墨일수록 표면이 깨끗하다. 墨의 표면에 약간의 물을 발라 약한 불에 쪄인 후 表面이 노골노골할 때 큰 조개껍질이나 烏石 등으로 表面을 밀어서 光澤을 내기도 한다.



〈寫眞 11〉 光澤내기

차. 彩色하기

墨의 이름이나 紋樣에 색칠을 하여 마무리 한다. 이때 彩色하는 붓이 빠져나와도 墨에 색이 묻어나지 않도록 글씨나 紋樣의 주변에 약간의 기름을 칠하는 것이 좋다.



〈寫眞 12〉 彩色하기

金粉이나 銀粉을 칠하는 데에는 숙련이 필요하며, 金粉과 銀粉은 여러 번 씻겨서 잠을 재워야 한다. 金粉이나 銀粉을 물에 타서 휘저은 후에 하루 밤을 재우면 金粉이나 銀粉은 가라앉고 붉거나 흰 液體만 뜨게 된다.

이 액체를 부어 버리고 다시 물을 부은 후에 잘 휘저어서 다시 하루 밤을 재워서 위에 뜬 물을 부어 버린다. 金粉이나 銀粉을 水飛하는 것은 金粉이나 銀粉에 남아있는 금속성분의 녹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金粉이나 銀粉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寫眞 13〉 金粉·銀粉 칠하기

水飛한 金粉이나 銀粉을 아라비아 고무풀 등의 接着劑와 섞어서 칠한 다음 뒤집어 놓는다.

뒤집어서 건조시켜야 金粉이나 銀粉이 비중에 의해 가라앉으면서 색이 옅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V. 結 論

이상에서 文房四寶 중의 하나인 墨의 概念과 種類 및 材料를 중심으로 韓國 傳統 製墨法의 復元을 위한 墨의 製造法에 관하여 考究한 바, 이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墨은 어떤 종류의 炭粉(煤·烟·carbon black)이든 炭粉과 阿膠를 섞어서 固體로 제조한 墨塊를 凡稱하는 것으로, 그 주성분인 炭粉의 종류에 따라 松烟墨과 油煙墨으로 구분된다.

(2) 松烟墨은 소나무를 태운 松烟과 阿膠를 섞어서 固體로 굳혀서 製造한 墨塊로 '숯먹' 또는 '개먹'이라고도 한다.

(3) 油煙墨은 植物性이나 動物性 및 鑛物性의 기름을 태운 油煙과 阿膠를 섞어서 固體로 굳혀서 製造한 墨塊로 '참먹'이라고도 한다.

(4) 墨의 재료는 炭粉과 阿膠 및 香料이다. 松烟은 소나무를 태워서 추출한 炭粉으로 빛의 반사가 적고 色彩를 흡수하는 편이라 厚朴한 黑色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油煙은 植物性·動物性·鑛物性 등의 기름을 태워서 추출한 炭粉으로 松烟에 비해 번짐이 효과가 좋은 것이 특징이다. 阿膠는 다양한 동물의 뽕·뼉·힘줄·가죽 등을 물과 함께 끓여서 만든 動物性 蛋白質이다. 전통적으로 墨에 첨가되는 香料는 甘松末·白檀·丁字·樟腦·龍腦·麝香 등이다.

(5) 우리나라 傳統의 製墨法은 魚叔權의 『攷事撮要』, 洪萬選의 『山林經濟』, 徐有槩의 『林園十六志』 중의 〈怡雲志〉, 辛仲厚의 『東國厚生錄』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魚叔權의 『攷事撮要』에 수록된 〈韋仲將合墨法〉과 〈俗例造墨法〉 및 洪萬選의 『山林經濟』에는 수록된 松烟墨의 제조법 등을 要約하거나 轉載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6) 오늘날 傳統의 製墨法은 斷絶되어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으나, 現代에 들어서 관심이 있는 墨匠들에 의해 傳統의 製墨法이 復元되고 있는 중이다.

참 고 문 헌

計楠, 墨餘贅稿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麻三衡, 墨志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萬壽祺, 論古今墨論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萬壽祺, 論墨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萬壽祺, 墨表 2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 淸州: 泰一文化社, 2003.
- 徐有渠, 林園十六志.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1980. 怡雲志3. 文房雜製.
- 宋榮, 漫堂墨品 3卷, 附墨論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宋應星 著, 董文 校, 校正天工開物. 中國學術名著 第5輯. 學術叢編 第2集 第1冊. 臺北: 世界書局, 民國68(1979).
- 辛仲厚 著,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1862頃]. 淸州古印刷博物館所藏本.
- 沈繼孫, 墨法集要 1卷, 序 1卷, 目錄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楊家駱 主編, 文房四寶. 中國學術名著 第5輯. 學術叢編 第1集 第31冊.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陸友, 墨史 3卷, 目錄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李謙魯, 文房四友. 서울: 대원사, 1997.
- 이영재, 덕. 『生活文物研究』 제4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2.
- 張仁熙, 雪堂墨品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정승웅, 천진기, 박찬욱 공편, 덕. 『文房四友調查報告書』. 서울: 國立民俗博物館, 1999.
- 晁貫之, 墨經 1卷, 目錄 1卷, 提要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何遠, 墨記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韓尙默, 尙墨. 서울: 書藝文人畫, 2005.
- 韓尙默, 松烟墨. 서울: 書藝文人畫, 2007.
- 洪萬選, 山林經濟.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卷3. 雜方.

